

섬김의 교회는

- 8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와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쉬지 않고 나아갑니다.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하나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 **치유, 회복**과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믿음 성장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에

네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요한 3서 1:2

예배 및 모임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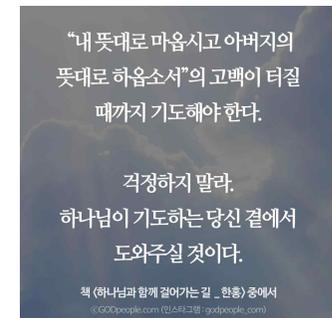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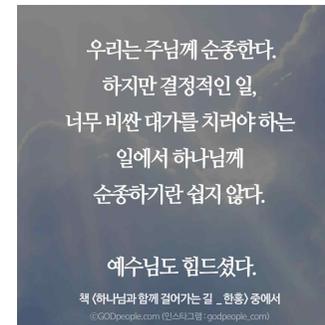
- 주일예배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 am
주일학교 Sunday School / Sunday 11:30 am (뉴 라이프 교회)
주일 성경공부 Sunday Bible Study / Sunday 11:00 am
금요 찬양예배 Friday Service / Friday 8:00 pm
새벽 경건회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 to 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주중 성경공부 Bible Studies / Tuesday 8:00 pm (zoom)
일대일 제자훈련 Discipleship Classes / Monday 10:00 am

교회위치 Location



800 E. Palatine Rd., Palatine, IL 60074
847) 691-7846
www.churchofservant.com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2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7

- 환영과 축복 사역과 소식 (교회/교우)
- 하나님 앞으로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박진성 집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민수기 21:21-35 (구약 232쪽)
 “하나님과 동행할 때”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양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결단의 기도
- 헌신과 열매 봉헌 오정은 / 최내권 집사
(봉헌/나눔) ★ 봉헌찬송 / 213장, 4절
 “나의 생명 드리니”
- 세상과 삶으로 ★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섭니다.

예배시간 10분 전 휴대전화를 끄고,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금요 찬양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송 이야기”와 함께
 성경: 사도행전 13:1-3
 묵상 제목: “세우라 하시니”



6 뉴욕에서 아름다운 변혁의 시간을 보낼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매 순간 어떻게 조직하시고 각 만남의 중심에 계셨는지에 놀랍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5월부터 사역 팀들이 와서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뉴욕을 향한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으로 섬기며 땅밋기와 전도, 특히 prayer station을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필요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한 거리를 청소하고, 영어를 가르치고, 아이들의 방과후 숙제를 도우며, 공원에 가서도 아들과 즐거운 성경 게임을 하면서도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8월 중순까지 미국 전역에서 이런 팀들이 옵니다!

샤르마는 올해 14살입니다! 저희 공부방에 나오지 삼년 반가량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공부를 싫어해서 숙제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갔는데, 세번만 참석해 보고 재미 없으면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세번을 참석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저희 팀들이 돌아가면서 성령님께서 샤르마를 만져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니 아이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죄인인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으면서 말씀에 갈급해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화를냈지만 샤르마의 간절함을 보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는 말씀이 너무 좋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서 매일 성경을 읽고 세례도 받고 싶다고 본인이 결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세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마음을 열려 축복 속에 세례를 받기를 기도했는데, 결국 부모의 허락 속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샤르마는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친척,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른들을 위한 영어 캠프를 2박3일 동안 오하이오에서 온 사역팀이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영어 울렁증을 재미있게 극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Mother's Day를 위해서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과 주변의 가게의 도움으로 학생들에게 풍성한 물품과 화분을 나눠주었습니다. 독거노인들에게는 찾아가 선물을 드렸습니다. 이들 중 기도 제목을 나누길 청했을 때, 청각을 잃은 나르얀이 직장을 얻기를 원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한후 에 일주일에 두번씩 청소일을 하게 되어 응답받았다고 기뻐했습니다.

이번 시즌에 우리가 함께 일하며 역동적이고 다문화적이며 다양한 길을 여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연합을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 팀들과 함께 봉사할 수 있어서 정말 즐겁고 기대됩니다.

섬김의 교회를 방문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후, 점심 친교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소식

7월 기도와 말씀묵상 / 순종과 충성의 열매

1. 성장과 성숙 주간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믿음의 성장과 신앙생활의 성숙을 추구합니다.
2. 상반기 결산 지난 주 제직회를 통해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준비를 했습니다. 헌신에 감사합니다.
3. 사역친교 점심 친교 시간에 행정/교우/친교사역을 점검합니다.
5. 방학 자녀들이 방학 중 자기발전을 하며, 신앙이 성장하도록, 특히, 7월 단기선교(7/29-8/3)를 위해 기도합니다.
6. 연합사역 7월 찬송 이야기(11 목요일, 7:00pm)를 섬김의 교회에서 가집니다. 금요찬양예배(12)는 신정철/박재룡 목사의 인도로, 금요찬양예배(19)는 살롬장로교회에서 연합으로, 28 주일예배는 주찬양 교회와 연합으로 설립감사 예배로드립니다.
7. 구제 사역 구제를 위한 옷/생활용품 기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 중보기도 매일 낮 12시, 저녁 9시 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9. 나눔과 교제 주일 점심 친교 후, 다 함께 교제합니다.
10. 문서전도 매주 목요일판 '교차로'에 섬김의 교회가 참여하는 복음메시지가 실리고 있습니다.

교우소식

생일축하

오정은/이광호(14) 구은강(28)

7월 사역

사역친교(행정/교우/친교) 성장/성숙주간(7-13) 찬송 이야기(11) 설립기념 금요찬양(12) Oikos 모임(14) 소금/빛 된 주간(14-20) 선교주간(21-27) 연합예배(7/28)

한 주간의 말씀

시편 31:19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지요

4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받는다면, 순탄한 길, 적어도 평범한 인생이길 기대하기 쉽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여정은 우회하는 길이었고, 오히려 왕들의 기습공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승리하며 더 넓은 기업을 얻었다. 누구나 고난과 역경, 전쟁과 재난, 최악의 상황을 만날 수 있더라도,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자.

말씀요약

인생의 역경과 위기에서도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감사할 이유를 이스라엘의 여정에서 찾을 수 있다.

마음이 상해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훈육 받았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들의 공격을 받지만 승리한다. 전화위복의 축복이었다. 믿음으로 늦뱀을 바라보아 고통과 죽음에서 자유를 얻고 가나안을 향해 남은 길을 가던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과 두 번 전쟁을 치른다. 국제무역로를 평화롭게 통과할 수 없다고 헤스본 왕 시혼에 이어 바산 왕 옥이 전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

정복한 땅은 헤스본과 바산은 르우벤과 갓,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된다. 이스라엘은 남방 가나안 족속(아랏), 아말렉, 모압, 등과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기업을 얻지는 못했지만, 이제 얻은 땅은 기업이 되고, 후방이 견고하게 만들어졌다. 뜻대로 되지 않아 불평하고 회초리를 맞던,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로 돌아가는 여정, 험한 광야 길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했었다. 그러나 험한 길은 축복이 되었다. 당신은 흑사 멀리 돌아간다고 불평하는가. 속히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낙망하는가. 자신은 뜻대로 되지 않는 반면, 승승장구하는 이들이 부러운가.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새 기업을 복으로 받은 것처럼 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와 가정, 인생과 삶의 지경을 넓히자. 지난 상반기를 결산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일어서 하반기 사역에 충성하자.

1. **성장과 열매:** 2024년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 공동체의 사역들이 열매를 맺도록
2. **영성:** 삶 속에서 말씀묵상과 기도로 영성 훈련하도록
3. **가정의 기도 제목:** 사업의 어려움, 파병된 자녀의 안전, 새로운 준비를 하는 자녀, 건강의 회복
4. **가족:** 영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5. **교육사역:** 자녀들의 영적성장과 Youth Ministry를 위해
6. **Oikos 사역:** 소그룹 사역으로 회복과 전도의 은혜를 누리도록
7. **선교지와 선교사:** 네팔/뉴욕(박은주 선교사)
8. **이웃 교회들과 연합사역:** 살림교회/주찬양교회/찬송이야기 사역

선교 소식 (네팔/뉴욕, 박은주 선교사)

1. 뉴욕 문화/봉사/기도 센터를 통해 복음을 접한 사르마와 같은 학생이 늘어나도록
2. 사역팀들이 기쁨 속에 복음을 전하며 지지하지 않도록
3. 가족들의 구원, 영적으로 성장하며, 육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맑은 사역에 충성하며, 분별력을 가진 삶을 살도록

예배 섬김이

주일 기도 인도	7월 7일	박진성	집사
	14일	구은강	집사
	21일	김윤경	사모
	28일	김훈태	집사
주일 봉헌 인도	7월 7일	오정은/최내권	집사
	14일	구민/최선윤	집사
	21일	최선윤/구민	집사
	28일	최내권/구은강	집사
주일 예배 안내	7월		집사

섬기는 사역자들

지도목회자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교육전도사 (Youth Minister) Jacob Kim 전도사
찬양인도자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